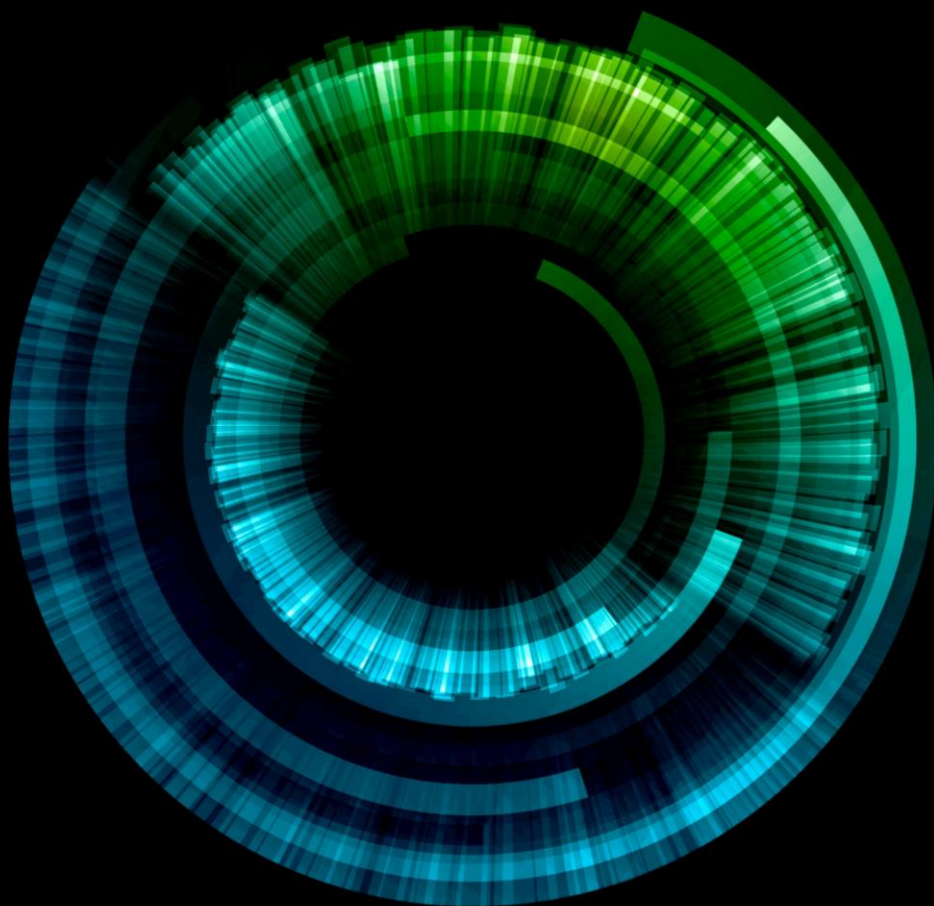


# Deloitt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Brief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외 2분기 동향

2024.04

#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FAQ
- 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  
「Climate change governance and the board chair of the future: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ward a low-carbon future」

##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이사회 의장의 미래 과제 :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 가속화

- ▶ 오늘날 이사회 의장은 기후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신기술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여 당면과제의 해결과 조직의 장기적인 성공 간의 균형을 잡는 과제를 부여 받았으며 기후 관련 당면과제의 다면적 특성으로 인해 이사회는 기후문제에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한편, 이사회 의장은 리더이자 경영진의 전략적 파트너, 조직의 대변인 및 분위기 조성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의 이번 보고서는 '22년부터 '24년까지 17개국, 230명의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얻은 인사이트를 종합하여 제공함
- ▶ 기후 거버넌스에 대한 이사회 준비정도를 평가하는 6가지 질문

다운로드



QR 코드



### 1. 기후 아젠다를 비즈니스 전략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기업 전략 논의에 기후 전략을 포함하고, 각 리스크 관리 활동에 기후조치 통합

### 2. 기후변화에 필요한 투자와 단기적 성과 압박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 장기적인 기후 공약을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하여 단기의 다년간 개별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면 진척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 도출

### 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치를 관리하면서 규제변화에 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이사회 의장은 스튜어드십(청지기정신)을 발휘하여 생산적인 양방향 대화 진행
- 투자자의 구체적인 당면과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장기적인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관계를 구축

### 4. 이사회가 광범위한 기후 아젠다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효과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 다양한 전문가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내부 및 경영진과의 소통 강화
- 기후와 지속가능성 이슈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이사회의 업무량을 관리

### 5. 기후 문해력 (climate literacy) 향상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 이사회 회의시 내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 및 역량 향상의 기회 제공
- 이사회에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를 영입하여 기후 아젠다를 진전
- 이사회 다양성을 확대하여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집단적 지식과 관점을 확장토록 지원

### 6. 이사회 의장으로서 어떻게 의미 있는 변화를 지지할 수 있는가?

- 상기 5개 질문과 더불어 동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험·의견을 공유하고 공동 발전방안 모색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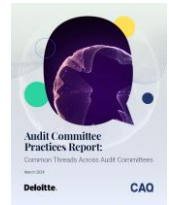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Audit Committees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3rd edition」

## 2024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 감사위원회의 공통된 생각, 제3판

- ▶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조직은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감독해야 할 대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중점과제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감독을 통해 감사위원회 실무의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음
- ▶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와 감사품질센터가 공동 연구한 이번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제3판에서는 글로벌 감사위원 266명을 대상으로 '24년도 감사위원회 중점과제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응답자들은 향후 1년간의 중점과제로 사이버 보안(69%), 전사 리스크 관리(48%), 재무·내부감사 인재(37%) 등을 예상함
- ▶ 2024 감사위원회 중점과제

다운로드



QR 코드



| 구분                     | 주요 내용   |
|------------------------|---|
| 사이버보안<br>(6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사이버보안 공시요건 강화에 따라 이사진은 사이버 이슈에 대해 스스로 교육하고 CIO/CISO 와의 정기 소통을 통해 최신 정보 수령 필요</li> </ul>   |
| 전사 리스크 관리<br>(4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리스크 환경이 진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등장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경계가 필요</li> <li>현재 ERM 프로세스의 글로벌 리스크 환경 진화 및 신규위협 처리 가능성, 효율성·효과성, 자원지원의 적절성 평가 필요</li> </ul>   |
| 재무·내부감사<br>인재<br>(3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내부감사팀과 긴밀한 관계 구축증진하며 두 팀의 승계계획 감독 외에도 기술발전이 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 필요</li> <li>내부감사를 입증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으로 간주하며, 내부감사는 보증(assurance) 제공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향후 리스크를 예측하고 조언하는 데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li> </ul> |
| 법률·규정 준수<br>(3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제 환경의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포함되었고,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기업의 법률 및 규정 미준수와 관련된 개정안(NOCLAR)을 제안</li> <li>제반법규, 경영진 준수노력, 미준수 리스크를 이해하여 어떤 리스크가 법적·재무적·운영적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지 평가</li> </ul>            |
| 재무혁신<br>(3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 충격, 업계 통합, 기술 가속화 및 새로운 규제 요건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직면</li> <li>제반법규, 경영진 준수노력, 미준수 리스크를 이해하여 어떤 리스크가 법적·재무적·운영적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지 평가</li> </ul>   |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On the board's agenda, 「Questioning technology governance orthodoxy」

## 기술 거버넌스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다

- 이전에는 다른 영역으로부터 분리되고 전문화된 주제였던 기술이 거버넌스의 여러 측면에 통합됨에 따라 가속화된 발전 속도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이사회는 기술 거버넌스 영역의 역량 확보가 필요함
-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의 시사점

| 기술 트렌드 동력 | 변화하는 것  | 변화하지 않는 것  |
|-----------|---|--|
| 상호작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크린을 넘어선 인터페이스의 진화에서 공간 컴퓨팅과 산업 메타버스로의 초점 변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자의 디지털 환경 참여 방식을 변화시키는 몰입형 인터랙티브 기술 경험에 초점</li> </ul> |
| 정보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우위를 위한 시도구의 상품화부터 기업환경 속 AI 실제 적용까지 변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역할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통합에 대한 활발한 논의</li> </ul>              |
| 연산능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 하드웨어의 등장은 이진수 연산을 넘어선 변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더 복잡한 작업을 위해 고급 컴퓨팅기능과 인프라 진화 요구</li> </ul>             |
| 기술 비즈니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인재 선별·육성하는 폭넓은 사고방식부터 생산성 향상 방식까지) 개발자의 경험 활용 방향이 변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적인 전략은 변화할 수 있지만 경쟁우위 관점에서의 인력의 중요성은 불변</li> </ul>    |
| 사이버와 신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록체인 기반 생태계의 활용은 여전히 가치 있지만, 합성 미디어의 관련 과제가 부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이버와 신뢰의 관계는 진화중</li> </ul>                             |
| 코어시스템 현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거시 시스템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것에서 '기술적 웰니스' 접근방식으로 변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 건전성의 발전은 기반 기술 인프라 업데이트의 가치 확인에 유용</li> </ul>        |

- 이사회 거버넌스 및 전략에 대한 시사점

### 주요 내용

- 빠른 기술발전의 속도로 인해 리스크와 기회를 더 자주 평가 필요
- 기술발전 라이프사이클의 각 단계별 이사회 리스크 및 기회 전략이 바뀔 수 있음
- 최신 기술의 도입이 조직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입평가 필요

다운로드

Deloitte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 US  
Questioning technology  
governance orthodoxy

QR 코드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 『Women in the boardroom: A global perspective, 8<sup>th</sup>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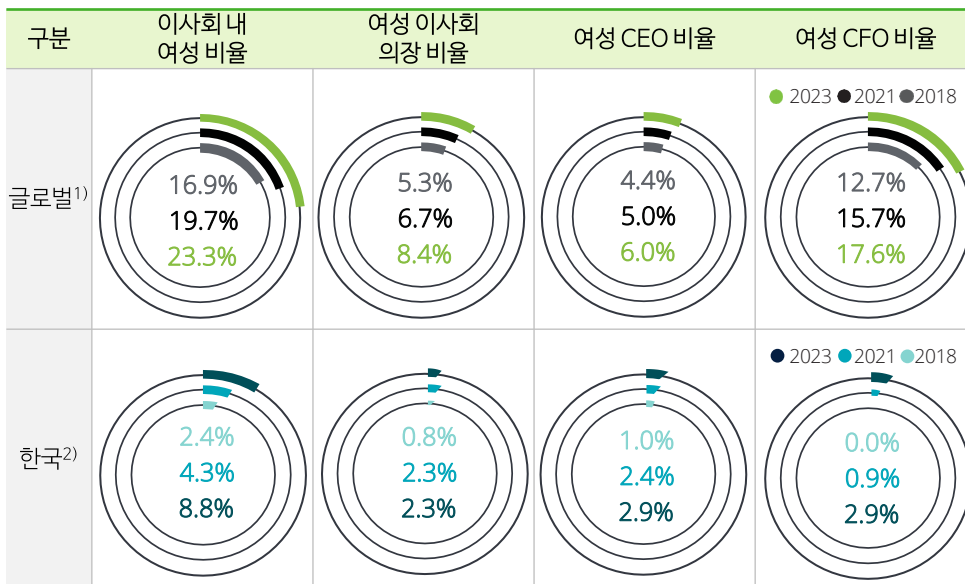
## 우먼 인 더 보드룸 : 글로벌 관점, 제8판

- ▶ 『우먼 인 더 보드룸: 글로벌 관점』 제8판 보고서는 '23년 3월, 50개국 18,000개 이상 기업, 206,000개 이상 이사직 데이터를 분석하여 글로벌 이사회 여성비율과 성 다양성 관련 정치·사회·법적동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
- ▶ 글로벌 50개국 이사회 성평등(Gender Parity)\* 현황
  - \*남녀평등을 지수로 나타내는 용어로 남녀동수를 뜻함
  - 23년 글로벌 이사회 내 여성비율은 작년 대비 3% 증가에 그친 23.3%에 불과하며, 성평등 노력은 진전되었으나 더 큰 추진력 없이는 2038년 내 성평등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3년 글로벌 여성 이사회 의장 비율은 8.4%, 여성 CEO 비율은 6%에 불과하여 현 속도라면 이사회의장 및 CEO 직책의 성평등은 각각 2073년, 2111년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 한국 이사회 성평등(Gender Parity) 현황
  - 23년 이사회 여성비율은 약 9%로 21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50개국 중 최하위 5개국에 속함
  -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국내 상장사는 이사회를 단일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향후 한국에서도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이사회 다양성 확대를 통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이사회 효과성과 회계 투명성 제고가 기대됨
- ▶ 주요 서베이 결과 비교 (글로벌 VS 한국)
  - 이사회 & 최고경영진 내 여성비율

다운로드



QR 코드



1) 글로벌 50개국의 총 18,085개사를 분석하였으며, 이사회 내 여성이사 수는 18,532명임

2) 총 461개사를 분석하였으며, 이사회 내 여성이사 수는 253명임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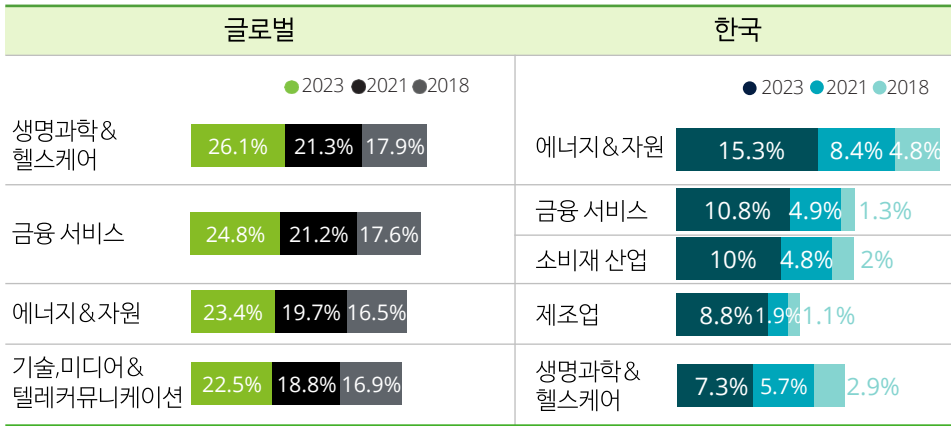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 「Women in the boardroom: A global perspective, 8<sup>th</sup> edition」

## 우먼 인 더 보드룸 : 글로벌 관점, 제8판

### ▶ 주요 서베이 결과 비교 (글로벌 VS 한국) (계속)

-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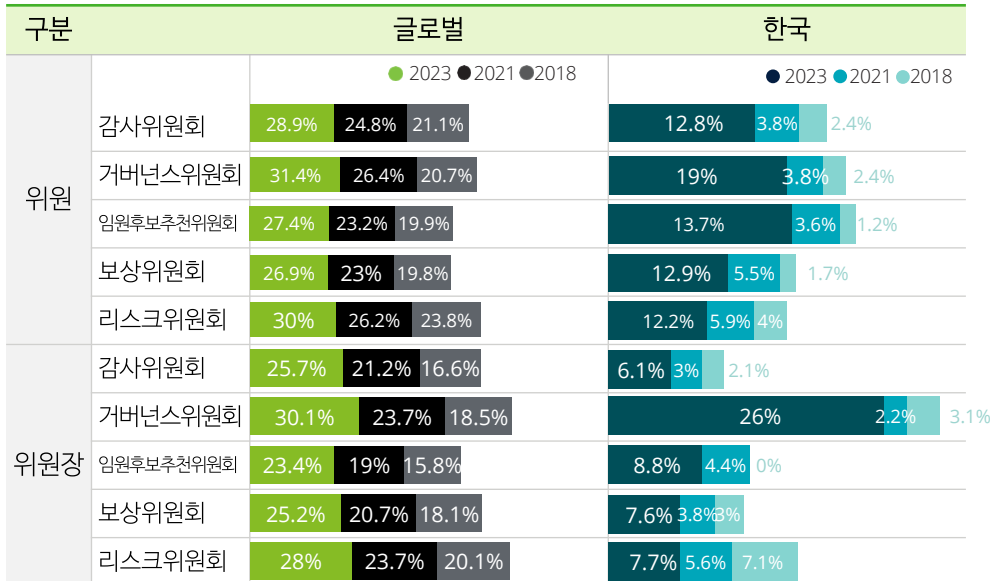
다운로드



QR 코드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여성 비율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Deloitte Internal audit megatrends, 「2024 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 Insights and Actions」

## 2024년 NEW 국제내부감사표준(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 공개

➢ 세계내부감사인협회(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이하 'IIA')는 '24년 1월 9일 개정된 국제내부감사표준을 발표함

- 지난 2017년에 발표된 국제내부감사표준은 1년간의 전환기간 동안 사용이 승인된 상태로 유지되며, 2025년 1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조기도입을 권장함
- 새로운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내부감사 기능의 기준을 높이고 내부감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IIA는 본 표준 발표의 일환으로 '글로벌 내부감사 표준에 대한 표준 설정 및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함

다운로드



QR 코드



### 1. 원칙에 기반한 15개의 기본원칙 및 5개 영역으로 구성

- 효과적인 내부감사를 위한 15개 지침 원칙과 5개 영역의 원칙 기반의 구조로 구성되며 각 원칙은 필수요건을 포함하는 표준으로 뒷받침되고 각 표준은 이행시 고려사항과 준수 증거의 예시를 통해 뒷받침되며 고려사항과 예시는 단순 체크리스트로 간주되어서는 안됨

### 2. 영역 III: 내부감사인인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더 나은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내부감사에 필수적인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활동("필수조건")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의견 불일치의 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용어가 포함됨
- 표준 6.3에서는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 지원은 내부감사 기능을 지지하고 조직 전체에서 해당 기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중요성을 강조함

### 3. 내부감사 전략 개발: 표준 9.2 내부감사 개발 전략

- 최고내부감사책임자(CAE)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성공을 지원하고 이사회, 고위경영진 및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내부감사 기능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함
- 내부감사 전략에는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비전, 전략적 목표 및 지원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야 하며, CAE는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과 함께 내부감사 전략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 4. 표준 8.4 외부 품질평가(EAQ) 추가 요구 사항

- EAQ 수행팀 구성원 중 최소 1명이 유효한 CIA(Certified Internal Auditor)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신규 요건이 포함됨

### 5. 표준 10.3 기술자원 내부감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

- CAE는 내부감사 기능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 구현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기술적 제한이 내부감사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함

### 6. 표준 14.3 내부감사 결과 평가 및 표준 14.5 결론은 결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 CAE는 개별 감사 결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사 결론을 제시하는 방법론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CAE가 내부감사 보고를 조직 내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판단으로 인정하는 것임

### 7. 표준은 내부감사 및 자문서비스 수행에 모두 적용

- 자문 서비스 수행에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역 V에 내부감사 서비스 수행의 개별 표준 내에 언어가 포함하고 자문 서비스의 성격과 목표가 다양하여 이러한 유형의 업무를 실행하는 데 추가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공함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On the board's agenda, 「Living in “interesting” times: The 2024 board agenda」

## 흥미로운 거버넌스의 시대: 2024년 이사회 아젠다

- 2024년은 거버넌스가 더욱 흥미로워질 시기로 전망되는데, 이는 현재 전세계가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 변동성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문제와 맞서고 있으며 기술 및 기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발전은 계속해서 수많은 새로운 기회와 위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임
- 주목할 위험과 기회

| 구분                | 내용   |
|-------------------|--|
| 지정학적 격변과 경제적 불확실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자본흐름과 해외투자에 영향을 미침</li> <li>• 이는 장기 과제인 기후변화와도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거시적 리스크가 다양한 시기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은 수익률이 낮은 사업을 매각·구조조정, 인력감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li> </ul> |
| 규제조사 및 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변경 및 컴플라이언스 보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은 효과적인 이사회 감독의 기초임</li> </ul>  |
| 사이버보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버보안 감독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최우선 순위로 지목한 안건임</li> <l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법인의 사이버보안 위험 프로세스와 세부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함</li> </ul>   |
| 생성형 인공지능 (Gen A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책임감 있는 기술 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버넌스 프로세스, 규정, 기준을 적절히 조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이사회 의사결정의 지속적인 과제임</li> </ul>  |
| 데이터 변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개선부터 고객확보전략까지, 기업들은 오랫동안 빅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해왔으며 24년 이후에는 빅데이터가 Gen AI와 같은 신흥기술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으면서 더 많은 기업이 기술과 데이터 사용을 통합할 것임</li> </ul>   |

다운로드



On the board's agenda | US  
Living in “interesting” times  
The 2024 board agenda

QR 코드



### ➤ 이사회 효과성을 위한 전략

| 주요 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가 보고받는 정보의 품질 및 적시성 향상</li> <li>•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사회 및 위원회 아젠다를 재구성</li> <li>• 개별이사 평가를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이사회 및 위원회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권고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 수행</li> <li>• 이사회 의사결정의 대규모 이사 승계계획 전략의 일환으로 Gen AI 및 이와 유사한 신흥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li> <li>• 신입 이사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이사 온보딩(onboarding) 제공</li> <li>• 이사가 의미 있는 질문을 제기 및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 비즈니스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li> </ul> |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On the audit committee's agenda, 「Looking ahead: The audit committee agenda in 2024」

## 2024년 감사위원회 안건 전망

▶ 딜로이트는 2024년 감사위원회의 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감사위원회 안건에 포함할 만한 주요 항목을 살펴봄

- 규제 관련 사항

| 구분                      | 고려사항  |
|-------------------------|---|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공시 통제 및 절차의 적절성을 강조하여 향후 감사위원회가 공시 통제 및 절차를 엄격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높음</li> <li>• 재무제표에 기후 관련 정보를 포함 또는 공시에 대해 제3자의 보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위원회 감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li> <li>• 인적자본관리, 이사회 다양성,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및 자원 추출 회사의 지급 등의 규정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관여할 가능성이 높음</li> </ul> |
|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 (PCAO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수행 시 감사인의 일반적 책임, 회사의 법률 및 규정 미준수와 관련된 PCAOB 감사기준의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PCAOB 검사 보고서 검토 및 회사 감사에 대한 PCAOB 검사 여부와 회계법인이 검사 결과의 증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묻는 등 외부감사인 평가시 이를 고려토록 장려</li> </ul>   |

- 리스크

| 구분                   | 고려사항  |
|----------------------|---|
| 인공지능(AI) 및 기타 기술 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사용 증가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일반적인 리스크 감독 필요</li> <li>• 감사위원회는 사이버보안 등 위반 발생시 감사위원회가 크게 관여할 것이며, 회사는 해당 위반의 중대성 여부, 보고 시기 및 위반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결정해야 함</li> </ul> |
| 기타 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인 리스크 관리 지침의 적절성 및 실용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시뮬레이션 운영 고려 필요</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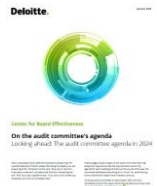
- 재무인재

- 기존 재무·회계 인재 유지 및 채용 문제, 더 많은 기술력의 필요성 등으로 조직의 재무·회계 인재의 필요성을 높이며, 감사위원회는 기존 인재와 미래를 위한 승계계획에 대한 집중 필요

- 감사위원회의 효과성

- 감사위원회는 보다 강력한 자체 평가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품질 향상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함
-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감사위원장이며, 최고의 감사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주요과제임

다운로드



QR 코드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 「Time to rethink talent in the Boardroom」

## 이사회 인재관리에 관한 사고 전환

- ▶ 생성형 시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 이해관계자의 기대치 변화, 기후행동에 대한 요구,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에 대한 진전의 필요성, 경제, 정치, 보건,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회에서 조직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내부의 사람들이 있음
- ▶ 조직과 이사회가 인재와 노동력의 미래에 대처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은 50여개국의 약 500명의 이사회 구성원과 최고 경영진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함
  - 많은 응답자들은 이사회가 인재 관련 주요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조직에서는 이사회와 다양한 안건들 사이에서 인재 관련 논의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 이사회가 인재의 미래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이사회가 고려할 수 있는 5가지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음

다운로드



QR 코드



| 구분 | 내용  |
|----|---|
| 1  | 이사회는 어떻게 인재 전략을 조직의 전략과 목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고려했습니까?   |
| 2  | 이사회는 경영진과의 협력을 통해 조직의 전략적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재 안건의 핵심 요소(시급한 운영 과제부터 장기적인 전략 및 고려사항에 이르기까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
| 3  | 이사회가 인재의 중요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이사회 회의 시간을 충분히 할애했습니까?   |
| 4  | 이사회는 광범위한 기업 전략과 함께 인재 전략을 재고하거나 검토하는 적절한 주기를 고려했습니까?   |
| 5  | 이사회가 인재 전략을 적절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거나 외부 전문가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인재에 대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4.22 (월) 금융위원회

## ESG 금융추진단,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

- ▶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잠정 4.30일 공개 예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함
- ▶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 '기후'분야부터 ESG 공시 의무화 우선적 추진

- 기업은 4가지 핵심요소(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함
  -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 공시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공시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시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공시

### 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공시기준 마련

- 기업이 스스로 ESG 관련 정부 정책 사용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법규상 공개되고 있는 정보: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
  - 정부부처에서 반영을 요청한 정보: 산업안전 관련 사항, 장애인 고용 현황 등

- ▶ 논의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의결(4.30일 잠정)을 통해 공개초안 전문이 공개될 예정임
- ▶ 국내 ESG 공시기준은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임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4.12 (금) 금융감독원

### 주주제안권 행사현황 및 주주총회 논의 결과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 최근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 행사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한된 기재범위 및 명확한 작성 지침 부재 등으로 적시에 충분히 공시되고 있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소수주주가 일정사항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
- ▶ 금융감독원은 ①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②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경과, ③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들을 주총 전·후 충실히 공시토록 하는 한편, 작성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쉽게 기재토록 공시서식을 개정함(24.4.12. 시행)
- ▶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행사현황 및 처리경과 공시

####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현황 빠짐없이 공시

|    |   |
|----|---|
| 현행 | • 공시기준상 사업연도말부터 주총 전까지 기간은 사업보고서 작성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음                      |
| 개선 | •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은 사업보고서(주총 1주전제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모두 기재토록 하여, 투자자가 주총 전 주주제안 제기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 주주제안권 행사자, 안건내용, 목적사항 포함여부, 거부사유 등 처리경과 상세히 기재

|    |  |
|----|--|
| 현행 | • 주주제안권 행사현황 기재시 안건 제목만 간략히 기재하고 행사자, 진행경과 등 세부 정보를 미기재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                      |
| 개선 | • 행사자, 주총 목적사항 포함여부, 거부사유, 진행경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표 형태 작성양식을 제공하여 회사의 주주제안 처리경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개선 |

- ▶ [주주총회 후] 주주제안 안건 등 주주총회 결과 공시

####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총 결과를 공시

|    |   |
|----|---|
| 현행 | • 공시기준상 주총 관련사항은 분기보고서 기재 생략이 가능하며, 3월 정기주총 결과는 8월 중순에 제출되는 반기보고서에 세부 결과가 공시됨 |
| 개선 | •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 주주총회 결과에는 안건명, 결의내용 뿐만 아니라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정보를 상세히 기재

|    |   |
|----|---|
| 현행 | • 주주총회 결과 기재사항에는 주주제안 안건의 별도 표시 의무가 없고, 안건 제목과 가결여부만 간략히 공시되고 있음                      |
| 개선 | • 주주제안 안건 여부를 표시토록 하고 안건별 주총 주요 논의내용을 반드시 기재토록 표 형태의 작성양식을 제공하여 주총 결과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개선 |

- ▶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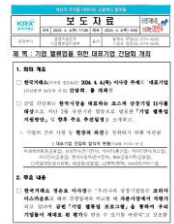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4.4 (목) 한국거래소

### 기업 밸류업을 위한 대표기업 간담회 개최

- ▶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 4일, '대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는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 상장기업 11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향후 주요추진일정을 소개하고, 기업의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됨
- ▶ 정은보 이사장은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해외 경쟁업체와 비교할 때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 ▶ 대표기업들은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 방향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운로드



QR 코드



#### 대표기업 의견

- 기관투자자 참여, 인센티브 확대, 이사회 역할, 자율공시 등 다양한 의견 제시
    - 기업 밸류업에 대한 정부 유관기관의 지원이 단기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기조로 유지될 필요
    -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의 밸류업 지수·ETF 편입 및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 밸류업과 투자 사이에 선순환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필요
    - 이사회 역할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형식적 참여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자율성을 부여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
    -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함에 있어 공시관련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필요
    - 정부가 마련 중인 세제지원 방안이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므로,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 필요
- ▶ 한국거래소는 수렴한 의견을 기업 밸류업 자문단에도 전달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제정·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사항 설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 4월 셋째 주 중견기업, 넷째 주 성장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이드라인이 공표된 5월 이후에는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임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4.2 (화) 금융위원회

##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를 추진하고,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하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 담당부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김소영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취지를 설명함

### ▶ 주요내용

#### 1.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등

-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에 해당한다는 의견 제기
- 낙후된 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상황에서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 경감,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여 기업가치가 제고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어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배구조 평가시 적극 고려되도록 가점요소로 반영하고 감리결과 조치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의 감경사유로 추가 예정
- 구체적 평가기준·방법과 면제방식은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25년 중 지정면제 평가, 선정시부터 실제 적용 계획

#### 2.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 현황

- '23.1월 정부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 및 추진
- 작년과 올해 관련 정관을 개정한 기업은 1,011개, 실제 깜깜이 배당을 해소한 기업은 109개로 집계
- 정부·유관기관은 배당절차 개선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토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계획

#### 3.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 대해 5개의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하여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 예정
- 상장·공시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과 유상증자, CB(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상호변경 등으로 추가, 변경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 관련 위반사항이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 간 유예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 예정

- ▶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성실 공시·이행 등 적극참여기업은 지난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공시우수법인, 코스닥대상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됨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3.29 (금) 금융감독원

## 2024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 ▶ 금융감독원은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2024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과 실시계획을 발표함
- ▶ 2024년 심사·감리 운영계획 기본방향

### 1.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

|         |  |
|---------|--|
| 절차 명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차가 명확한 근거하에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규정·매뉴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두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은 엄격히 제한(3일 이내 이메일 등 보완), 변호사 등 조력자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등은 문서화</li> </ul> </li> </ul> |
| 심의기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사건 사전심의회의 신설, 부서내 심사 전담자·의무 심사기간(1주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치수준 '고의&amp;과징금 20억원 이상' 안건 대상 (필요시 산업전문가 포함)</li> </ul> </li> </ul>                       |
| 방어권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 착수 이후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협조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통지 이후 피조치자가 요청시 절차, 조치사유 등 대면 안내</li> </ul> </li> </ul>                              |

### 2.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

|          |  |
|----------|--|
| 감시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감리 적극 실시</li> </ul>   |
| 효율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마심사* 회사수를 확대하여 위험요소 및 특이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신속히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년 주제: 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② CB 콜옵션, ③ 장기공사수익, ④ 우발부채 공시</li> </ul> </li> </ul> |
| 시스템·디지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심사·감리 진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디지털감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분석시스템 마련</li> </ul>  |

### 3.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           |  |
|-----------|--|
| 등록요건 감독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장법인이 감사인에 대해 인사, 자금, 회계 등의 실질적 통합관리 등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부적격 회계법인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을 통해 시장 선순환 유도</li> </ul>   |
| 맞춤형 감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영향력이 큰 Big4에 대해 자료요구·분석을 위한 사전 감리기간 별도 부여 등 감리프로세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주기 단축 (3년→2년)</li> </ul> </li> </ul> |
| 감사역량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수준 평가 지표 개선을 추진하고,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지원</li> </ul>   |

- ▶ 금융감독원은 '24년에 상장사 등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160사, 14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3.7 (목) 금융감독원

### '23년 중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 투자자보호 현황 점검

- ▶ 금융감독원은 '23년 중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사 전수 대상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분할신설회사 상장시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남
- ▶ 강화된 공시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기대효과, 구조개편계획 등 공시현황도 개선됐으나, 공시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됨
- ▶ 물적분할 및 투자자보호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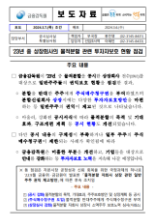
| 내용       |   |
|----------|---|
| 물적분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母)가 분할된 신설회사(子)의 주식을 100%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주주는 존속회사(母)를 통해 신설회사(子)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li> </ul> </li> </ul> |
| 투자자보호 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으로 ① 공시 강화('22.10월), ② 주식매수청구권 도입('22.12월), ③ 상장심사 강화('22.9월) 제도 시행</li> </ul>   |

#### ▶ 투자자보호 제도 현황 점검결과

| 구분      | 내용  |
|---------|---|
| 물적분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년중상장사의 물적분할 추진건수는 19건으로 전년(35건) 대비 16건 감소(△45.7%)</li> </ul>   |
| 공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는 강화된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물적분할 관련 구조개편 계획·검토 내용·주주보호방안 등의 항목을 누락 없이 공시</li> <li>• 다만 분할의 목적·효과 등 기재시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였고, 구조개편계획변경 시에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 확인</li> </ul>  |
| 주식매수청구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이 의결된 13사가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고 총발행주식 대비 평균 0.9%의 매수청구권 행사</li> <li>• 1사는 주주의 대규모 청구권 행사로 분할을 철회하는 등 회사가 충분한 공시를 통해 주주와 소통할 유인 확대</li> <li>• 다만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하여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 확인</li> </ul> |
| 상장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에 대한 거래소 심사 강화</li> <li>• '23년 중 상장한 1사는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자기주식 매입·소각, 현금배당 등 자회사 상장시 다양한 주주보호방안 마련</li> </ul>  |

- ▶ 제도 현황 점검결과 확인된 물적분할 공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자회사의 구조개편계획 변경시 정정공시, 주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분할 일정 수립 등을 기업에 유의토록 안내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3.5 (화) 금융감독원

##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 3월 5일, 금융위원회는 기업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함

### ▶ 주요 내용

#### 1.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

- 합병에 관한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일반주주가 이를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시행령 개정안은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비용 등 거래조건 적정성, 이사의 합병 반대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함
- 규정 개정안은 이사회 의견서를 당해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에 추가 공시토록 규정하여 합병 과정의 이사회 책임성 강화 및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2. 외부 평가제도 개선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시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외부평가가 가능토록 외부평가기관의 행위규율을 마련함
-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규정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이 위임한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였으며 합병 업무수행시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이해상충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함
- 규정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업무의 동시수행을 금지하고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참여한 경우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외부평가기관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환경을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3.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고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과 대조됨
- 개정안은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비계열사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 ▶ 금융위는 금번 개정안은 경제 금융단체, 외부평가기관, 금감원 거래소 등 유관 기관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기업합병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2.26 (월) 금융위원회

##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 지원 방안

- ▶ 2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함
- ▶ 주요 내용

### 1.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상장기업이 이사회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공시 하도록 안내함
  - 이사회가 실질적인 기업 경영관리의 최고결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
  - 기업 지배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기업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기업 스스로 평가해야 하며, ①현황진단 → ②목표설정 → ③계획수립 → ④이행평가·소통을 기재해야 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및 투자자 소통 노력 추가 기재하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4년 상반기) 확정 후, 하반기부터 자율공시
  -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강구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 2.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투자판단 지원

- 지속적 수익 창출 및 주주환원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목표
-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토록 지침화,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시행·소통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 및 참여 독려를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함<sup>1)</sup>
    - ✓ 7개의 원칙 중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참여 공표 후 원칙들을 이행해야 하며, 모든 세부원칙의 준수를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시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Comply or Explain)

\*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기관투자자 등의 이해를 돕고 실제 이행에 유용한 지침·사례 제공 목적으로 한국ESG 기준원이 '17년 6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발간

- ▶ 금융위원회는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1) 금융위원회,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024.3.14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2.26 (월) 금융감독원

###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2023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16건을 조치하였으며, 전년 대비 28건(31.8%)이 증가하였음

- 정기공시 27건, 발행공시 14건, 주요사항공시 4건, 기타공시 71건으로 상장법인 4사, 비상장법인 101사가 조치를 받은 바, 공시역량이 부족한 상장법인에 대한 조치가 다수이며, 과징금 중심으로 중조치가 부과(14건)되었고, 비상장법인의 경미한 위반의 다수 발생으로 경조치 비중(87.9%)이 높음
- 이는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속 조치한 것에 기인함

➤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 1. 온라인소액증권 관련 공시 위반

|     |   |
|-----|---|
| 회사  | • 발행인은 발행조건, 재무상태 등을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할 의무가 있으나, 공시전담 인력·조직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바, 사전 공시의무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 |
| 투자자 | •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매년 말 게재된 결산자료를 통해 발행인의 경영상태 확인 필요  |

#### 2. 외부 평가제도 개선

|     |   |
|-----|---|
| 회사  | • 현행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 대상자 50인(공모해당 기준)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투자조합에 청약 권유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원명부 등을 조합에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 |
| 투자자 | • 투자회사의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중요 투자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에 유의 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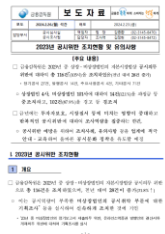
####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   |
|-----|---|
| 회사  | • 전환사채 발행 시 사채인수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투자판단시 중요사항임에도 주요사항보고서에 미기재할 경우, 발행회사가 담보제공 없이 회사의 신용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어 충분히 공시할 필요 |
| 투자자 | • 전환사채 발행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되고 있는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통해 담보 유무 등 확인 필요   |

#### 4.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   |
|-----|---|
| 회사  | • 비상장법인도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 별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 |
| 투자자 | •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미제출하는 경우 향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가능성 있음에 유의 필요   |

다운로드



QR 코드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조치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조치사례, 유의점 등을 안내·교육할 예정임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2.20 (화) 금융감독원

## 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23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4.4.1.)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함

### ▶ 중점점검사항

| 구분            | 점검사항  |
|---------------|---|
| 재무사항<br>(12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은 투자 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li> <li>① 요약(연결)재무정보, ②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③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④ 재고자산 현황, ⑤ 수주계약 현황</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등을 파악하여 제도가 안정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li> <li>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감사 의견,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 상 중요 정보가 사업보고서에서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li> <li>①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② 감사보수 및 시간 등, ③ 내부감사기구 감사인 간 논의내용, ④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⑤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li> </ul> </li> </ul> |
| 비재무사항<br>(2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접금융 자금(주식, 주식연계채권(CB·BW·EB), 회사채 발행자금)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임</li> <li>① 공사모 자금 사용내역, ②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사유, ③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내용 점검</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병등의 사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스팩을 통한 상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합병 당시 외부평가의 적정성은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임</li> <li>①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② 실제치의 차이, ③ 차이발생원인 등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영업실적 사후정보를 점검</li> </ul> </li> </ul>  |

다운로드



**QR 코드**



▶ 금융감독원은 올해 4~5월 중 '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5~6월 중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에 대해 자진정정토록 안내하되,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심사를 강화할 예정임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2.16 (금) 한국거래소

### '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사전 예고

- 2월 16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법인의 '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함
  - '20년 이후 보고서 점검결과 공시오류가 빈번한 사항, 금융당국의 적극 추진정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최근 개정사항을 위주로 중점점검사항을 선정하고 점검할 예정임
- 중점점검사항은 핵심지표 8개, 세부원칙 7개 등 총 15개 항목이 선정되었으며,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 세부원칙 관련사항은 필수기재사항 기재여부(내용 충실도) 준수에 대한 판단근거, 미준수시 그사유와 향후계획 등을 충분히 기재하였는지(설명 충실도) 면밀하게 살필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 구분                      | 세부원칙 관련항목의 점검내용  |
|-------------------------|--|
| 배당예측가능성 제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 개정 및 실제 현금배당시 배당예측가능성 제공 관련 기재 여부</li> <li>•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유·향후계획 (이하 사유 등)</li> </ul>  |
| 소액주주 등과의 소통 관련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현황 뿐 아니라 임원 참석여부 등 적극적인 소통노력 기재 여부</li> <li>• 소액주주 등과의 구체적인 소통내용 및 회사측 피드백 기재 여부</li> <li>• 소액주주 등과의 소통 부족 사유 등 기재여부</li> </ul>                                  |
|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자본조달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채권 등 발행목적, 규모, 전환 조건 refixing 등 기재 여부</li> <li>•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어떻게 고려했는지 기재 여부</li> </ul>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정책의 명문화 여부, 그 세부 내용 및 실제 운영현황 기재 여부</li> </ul>  |
| 기업가치 훼손 등 책임있는자의 임원선임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가치 훼손 등 판단기준, 판단 주체 및 절차 등 명문화된 정책 유무 및 세부내용 기재 여부</li> <li>•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임원선임 현황 및 해당 임원이 기업가치 훼손 등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기재 여부</li> </ul>                            |
| 임원보수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이사의 성과평과와 연계된 보수정책의 수립여부 및 주요 내용,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 및 접근방법의 기재 여부</li> <li>•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세부내용, 남용방지대책 기재 여부</li> <li>• 성과평과와 연계된 보수정책이 없는 경우 사유 등 기재 여부</li> </ul> |
| 내부감사부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감사부서(지원조직) 설치 현황, 독립성 확보 관련 기재 여부</li> </ul>  |

- 보고서 제출 마감(24.5.31)이후 신속 점검하여 올해 8월까지 정정공시 등 사후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중점점검사항별 작성기준 등을 제공하고 실무자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2.13 (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나왔다

- ▶ 2월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함
- ▶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형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 주요 내용

###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 구체적으로 규율

-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인 책무체계도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함
- 책무구조도 상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업무 및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제시함

###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규율화

-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을 차등하여 규정함
-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함

<표1>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점

| 은행 | 금융지주 | 금융투자                                | 보험             | 여신전문          | 저축은행            |
|----|------|-------------------------------------|----------------|---------------|-----------------|
| 전체 | 전체   | 자산총액 5조 이상<br>운용자산 20조 이상<br>종합투자회사 | 자산총액<br>5조 이상  | 자산총액<br>5조 이상 | 자산총액<br>7천억원 이상 |
|    |      | 자산총액 5조 미만<br>운용자산 20조 미만           | 자산총액<br>5조원 미만 | 자산총액<br>5조 미만 | 자산총액<br>7천억원 미만 |

1단계(법 시행후 6개월전까지 제출) → 2단계(1년) → 3단계(2년) → 4단계(3년)

###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 규율

-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함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함

- ▶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률시행일인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임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2.5 (월) 금융감독원

##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 ▶ 금융감독원 2024년도 12대 핵심과제 중 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살펴봄

-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책임경영 문화 및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유도하고,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 (핵심과제 9번)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

#### 1. 책임경영 문화 정착 및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유도

-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공시 사항 중 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 주요사항의 적정성 점검
-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회사별 반영 현황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범규준 제정 검토
- 지주·은행 이사회 간담회 실시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이사회 간담회 지속 추진
- 새롭게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 위해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작성 기준·방법 등 실무기준 마련

#### 2.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추진

- 금융지주 등의 그룹 감사·준법감시조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등 예방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 \* 인력·조직 규모 적정성,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위한 경영방침 등
- 금융사고 보고 절차 및 사후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보고·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요 금융사고 및 보고 미흡사례\*를 업계와 공유하여 개선 유도, 반복되는 사고유형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요인 개선 추진
  - \* 해외점포 금융사고 미보고, 금융사고 유형 오분류, 금융사고 금액 산정 미흡 등
- 신분증 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고 차단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본인확인제도 종합 개선방안 마련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2.1 (목) 금융감독원

###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 '23년말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는 41,212사로 전년 (37,519사) 대비 3,693사 (9.8% ↑) 증가하였으나, '23년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1,667사로 전년 (1,976사) 대비 309사(15.6% ↓) 급감함

#### '23년도 외부감사대상 현황

- 비상장사가 37,947사로 대부분 (92.1%)을 차지하며, 주권상장법인 2,642사 (6.4%), 유한회사 623사 (1.5%) 순임
  - 비상장 주식회사 (10.3%)와 유한회사 (10.1%)의 증가율은 10% 내외로 주권상장법인 (3.9%)을 크게 상회함

<표1> 외부감사 대상 회사 현황

(단위: 사, %)

| 구분           | 주식회사          |                |              |                |                   | 비상장              | 유한회사<br>(비상장)  | 합계                |
|--------------|---------------|----------------|--------------|----------------|-------------------|------------------|----------------|-------------------|
|              | 주권상장          |                |              |                |                   |                  |                |                   |
|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소계             |                   |                  |                |                   |
| '22년<br>(비중) | 819<br>(2.2)  | 1,591<br>(4.2) | 132<br>(0.4) | 2,542<br>(6.8) | 34,411<br>(91.7)  | 36,953<br>(98.5) | 566<br>(1.5)   | 37,519<br>(100.0) |
| '23년<br>(비중) | 833<br>(2.0)  | 1,680<br>(4.1) | 129<br>(0.3) | 2,642<br>(6.4) | 37,947<br>(92.1)  | 40,589<br>(98.5) | 623<br>(1.5)   | 41,212<br>(100.0) |
| 증감<br>(증감률)  | +14<br>(+1.7) | +89<br>(+5.6)  | Δ3<br>(Δ2.3) | +100<br>(+3.9) | +3,536<br>(+10.3) | +3,636<br>(+9.8) | +57<br>(+10.1) | +3,693<br>(+9.8)  |

#### '23년도 감사인 지정 현황

- 23년 말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의 비중은 4.0%로 전년(5.3%) 대비 1.3%p 축소됨

<표2> 외부감사인 지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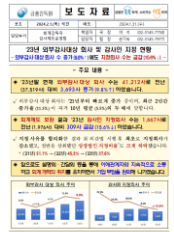
(단위: 사, %, %p)

| 구분 |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a) | '23년(b) | 증감(b-a) |
|----|-----------|--------|--------|--------|--------|---------|---------|---------|
| 전체 | 지정회사(A)*  | 699    | 1,224  | 1,521  | 1,969  | 1,976   | 1,677   | Δ309    |
|    | 전체 외감(B)  | 31,473 | 32,431 | 31,744 | 33,250 | 37,519  | 41,212  | 3,696   |
|    | 지정비율(A/B) | 2.2    | 3.8    | 4.8    | 5.9    | 5.3     | 4.0     | Δ1.3    |
| 상장 | 지정회사(A)*  | 284    | 807    | 1,060  | 1,256  | 1,152   | 994     | Δ158    |
|    | 전체 상장사(B) | 2,230  | 2,326  | 2,382  | 2,457  | 2,542   | 2,642   | 100     |
|    | 지정비율(A/B) | 12.7   | 34.7   | 44.5   | 51.1   | 45.3    | 37.6    | Δ7.7    |

\*지정시점 기준 예: '23년에 '24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23년 지정회사로 간주하고 계산

-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실시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회사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임

다운로드



QR 코드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1.29 (월) 금융감독원

###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

- ▶ 금융감독원은 수주산업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거 주요 감리지적사례 등을 참고하여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금년도 중점심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등 엄정히 관리·감독할 예정임
- ▶ 수주산업 관련 재무제표 감리 주요 지적사례

| 구분                          | 수주산업 관련 재무제표 감리 주요 지적사례  |
|-----------------------------|--|
| 총공사예정원가 과소산정<br>(→매출액 과대계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공사예정원가에 미반영</li> <li>• B사는 총공사예정원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수정하여 공사진행률 상향 조작</li> </ul>  |
| 발생원가의 과대계상<br>(→매출액 과대계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사는 선급금을 임의로 발생원가로 간주하여 공사진행률 상향 조작</li> <li>• D사는 사업종료 후 원가를 진행 중인 타 사업의 원가로 계상하는 등의 전산 조작을 통해 사업 간 원가 부당 대체</li> </ul>  |
| 공사계약금액의 부당변경<br>(→매출액 과대계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사는 발주사가 지급 거절한 계약금액 증액분 등 회수가능성이 낮은 계약금액 증액분 부당 가산</li> <li>• F사는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발주사로부터 물품인도연장 및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지급요청 받고 수용했으나 계약금액에서 지연배상금 미차감</li> </ul> |
| 우발부채, 충당부채 누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저조하고 분양가 하락임에도 PF대출지급보증 금액을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음</li> <li>• 자사의 회생절차 수행과 관련된 채무변제 예정금액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음</li> </ul>                                 |



- ▶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

| 구분    |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  |
|-------|--|
| 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예정원가 변동여부 확인 및 반영 필요</li> <li>•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의 평가 및 공시 필요</li> <li>• 선급금(미진행), 착오·낭비성 원가 등 공사 진행률 산정 시 제외</li> <li>• 우발부채 공시 및 충당부채 인식 여부의 면밀한 검토 필요</li> <li>• 외부감사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li> </ul> |
| 외부감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자료, 원자재 가격 등 예정원가에 적절히 반영 필요</li> <li>• 선급금 투입여부 및 활동별 원가 집계 적정성 확인 필요</li> <li>• 수주산업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리스크, 시장상황, 원가산정의 적정성 검토 필요</li> <li>• 우발부채 충당부채 관련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수집 필요</li> </ul>      |

- ▶ 금융감독원은 '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를 선정·예고한 바 있어 이에 대해 '24년 중 중점심사를 실시할 예정임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1.26 (금) 금융감독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함

### 1.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공시 관련

| 유의사항  | 위반사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는 자산총액 증가, 상장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 확인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산총액이 증가하여 내부회계 구축대상이었으나 이를 미인지</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는 자원·인력 등 충분히 투입하여 내실 있는 제도 운영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내부회계 도입 초기인 D사는 내부회계관리 조직 인력 미보유</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서류 누락 여부 확인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상 운영실태보고서는 첨부하였으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미첨부</li> </ul>              |

### 2. [대표이사·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의무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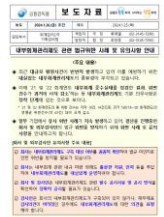
| 유의사항   | 위반사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운영실태를, 감사는 이사회에 내부회계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고 기록 관리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으나, 이사회 및 감사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고, 감사도 평가의무 미이행</li> </ul> |

### 3. [외부감사인] 의견 표명 의무

| 유의사항  | 위반사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회계 의견 표명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으므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정의한 방식으로 내부회계 관련 의견 표명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사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가 아닌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표명</li> </ul>                      |

➢ 금융감독원은 '23년 재무제표 공시 이후 법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 대통령실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갖추도록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발표할 것” [조선비즈]
- 밸류업 인센티브 세진다...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지정' 면제 [한국경제]
- 기업은행 “손동환 사외이사 선임, KT&G 지배구조 선진화 기여” [브릿지경제]
- 엡 헤지펀드 “韓 지배구조 개혁 없인 일본식 밸류업 효과 없어” [연합뉴스]
- 하나금융, 이사회 전면 개편...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한걸음 [뉴스1]
- 카카오뱅크, MSCI ESG 평가서 'AA' 획득...두 단계 등급 상향 [이코노미스트]
- 지배구조 개선·주주환원 확대 관전 포인트...주총 시즌 맞은 금융지주들 고심 [데일리한국]
- 일본 경제 저성장 탈피...기업 지배구조 개선 뒷받침 [뉴스핌]
- 삼성전자, 국내 200대 기업 중 'ESG 종합평가' 1위 [IT 조선]
- 이복현 “주주환원을 29% 불과...글로벌 기준 지배구조 정착에 노력” [글로벌경제신문]
- LG생활건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모든 분야서 맹활약 [아시아투데이]
- 금융위, 대표·임원 내부 통제 책임 범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 현대차그룹주, 저평가 주식 해소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아시아타임즈]
- 금융당국,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위한 책무구조 기본 방향 내놨다 [일간국세신문]



## 이사회·감사위원회

- 금융권에 '여풍' 불었지만...다양성 확대는 '여전한 과제' [데일리임팩트]
- 삼성바이오로직스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강화” [비즈니스포스트]
- KB금융지주, 권선주 이사회 의장 선임 [Bikorea]
- '거수기' 오명 사외이사 물갈이 금융사 지배구조 투명성 높인다 [매일경제]
- 주총 시즌 앞둔 금융지주, 女사외이사 모시기 '혈안' [글로벌경제신문]
- 소액주주 주주제안에...DB 하이텍, 이사회 '정원' 설정한다 [연합인포맥스]
- 풀무원, 이사회 중심 선진지배구조 체제 확립 [스마트경제]
- “국내 기업 이사회 여성 비중 8.8%..여성 근로자의 3분의 1” [MBC 뉴스]
- 금융지주 사외이사 67% 임기완료... '교수님 이사회' 확 바뀔까 [연합인포맥스]
- SK그룹, 사외이사 정례모임 확대...이사회 중심 '거버넌스 혁신' 가속 [매거진한경]
- 카카오, CA(Corporate Alignment)협의체 5개 위원회 운영 [연합뉴스]
- NXC 이사회 개편...“다양성과 전문성 제고” [디지털데일리]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이사회 역할 핵심 [ESG경제]

###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 딜로이트 안진-삼점삼, 올해 '중부세 환급서비스' 내놓는다 [한국세정신문]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글로벌 이사회 여성비율 다룬 '우먼 인 더 보드룸' 보고서 국문본 발간 [조선비즈]
- 딜로이트 안진, '디지털 자산센터' 출범 [한국경제]
- 변두리 이슈였던 ESG, 지금은? ...앞으로 더 중요 [이데일리]
- 딜로이트 안진, 기업 공시 효율화 솔루션 '다트 컨버터' 출시 [뉴스1]
- 2024년 딜로이트 HR 트렌드 세미나, 급변하는 경제 속 인적 자원의 미래 전략 [팍스경제]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이투데이]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이사회 인재관리에 관한 사고 전환' 서베이 보고서 국문본 발간 [조세일보]
- 은행 생성형 AI 도입하려면...거버넌스 수립에 초점 맞춰야 [한국금융신문]
-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 출범 [한국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WWD 코리아와 지속가능한 패션 생태계 구축 위해 '맞손' [이투데이]
-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조세일보]
- 韓소비자 38% "전기차 늘어도 내연기관차 선호" [동아일보]
- 딜로이트 "기업별 맞춤 데이터 쌓아라, 마케팅 효과 극대화" [IT 조선]
-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에 손혁·박주형 교수 [한국경제]
- 한경협, 김앤장·딜로이트 안진과 ESG 아카데미 4월 개최 [뉴스1]
- '제2차 회계대전'서 딜로이트안진 대약진...6곳 중 4곳 수임 [한국경제]
- 딜로이트 안진-법무법인 광장,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 딜로이트, 생성형 AI 기업 서베이 발간 [한국일보]
- 딜로이트 안진, 국민은행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 참여 [파이낸셜뉴스]

#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방지

- 잇단 금융사고에도 준법감시 5년 내내 '적정'...내부통제 문제 없나 [시사저널]
- 금융감독원장 "지방은행 내부통제 강화해야" [KBS뉴스]
- 정부,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관리' 개선 추진 [의학신문]
- 감사인력 확대 효과 미미...'레그테크' 새 대안으로 [이데일리]
- 어디로 튈지 모르는 행태정보, 전 세계 흐름은 '보호와 통제 강화' [보안뉴스]
- 상장사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증권위, 검찰 고발 조치 [뉴시스]
- 준법감시 인력 늘려도 금융사고 줄지 않았다 [헤럴드경제]
-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범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KBS 뉴스]
- 금감원 "은행 가상계좌 취급 실태 조사중...내부통제 강화할 것" [연합인포맥스]
- 대주주 자사주 악용 막고 투자지표 비교 공시한다 [매일경제]
- 카카오, 준법 및 윤리 경영 감시 목적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 정기회의 [매일일보]
- 감사원, 재정누수 감시 강화 목적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신설 [연합뉴스]
- AMR, 글로벌 데이터 유출 기술 시장 2031년까지 연평균 12.3% 성장 예측 [지티티코리아]



## 회계투명성

- 이상한 밸류업...지배구조 우수기업이라고 회계감사 완화? [한겨레]
- 금감원, 회계정보 투명성·신뢰성 제고 [아주경제]
- 계열사간 합병 투명성·공정성 확보..."이사회 공시·외부기관 평가" [한국경제]
- 내달부터 4월까지 노조 회계 공시...투명성 ↑ 세액공제 혜택도 [머니투데이]
-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교육 실시...거래소 운영 투명성 제고 [디지털데일리]
- 정책자금 투명사용 사전 검증...중진공, 새 시스템 도입 [뉴시스]
- 동원산업, 투명한 공시 정보 인정받아 2023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 [소셜밸류]
- 네이버, 투명성·공정성 높일 뉴스혁신포럼 출범 [뉴스핌]
-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통으로 투명성 강화 [전국매일신문]
- 한화, 임직원부터 'RSU 바로 알기'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소통 강화 [더구루]
- 아모레퍼시픽, 푸마 등 CDP 평가 A등급 획득으로 기후변화 정책 투명성 제고 [컨슈머와이드]
- 금감원,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통한 감사부담 완화 및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아세안익스프레스]

###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규제 동향

- 금융당국, 밸류업 회계·배당 인센티브 발굴 나서 [아주경제]
- 한국거래소, 삼성전자 등 코스피 대표 11개 기업과 '밸류업 간담회' [SBS Biz]
- 대한상의, "ESG 규제, 위기 아닌 기회...적극 대비해야" [머니투데이]
- 금감원, 은행권 잠재 부실 대응 강화...자본확충 지배구조 개선 [연합인포맥스]
- 금감원 "자산운용사, 주총 의결권 행사 충실해야...미흡할 시 사례 공개" [뉴스1]
- 당국 제동에 물적분할 46% 급감...금감원 내달 공시 추가 개정 [서울경제]
- 금융당국, 기업 합병시 '이사회 의견서' 의무 공시 [아주경제]
- 가치 높은 기업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조선일보]
-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16건...전년 대비 28건 증가 [연합인포맥스]
-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 발표 [이코노믹리뷰]
- 금감원장, "공매도 전산화 방안 이르면 내달 발표" [연합뉴스 TV]
- 은행권, 내부통제 책임 범위 정한 '책무구조도' 연말까지 제출해야 [연합인포맥스]
- 금감원, 수주산업 결산·외감 유의사항 마련 [머니투데이]
- 금감원, "비상장사도 자산 5000억 넘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해야" [데일리안 미디어]
- 9대 정책 과제 제시...부동산 리스크·가계부채 관리 집중 [뉴스웨이]
- 금융위원회, 전환사채(CB) 발행 시 공시의무 강화 [뉴스1]



#### M&A

- 2년 만에 다시 도는 M&A 시계...대기업 사모펀드 兆단위 빅딜 착수 [한국경제]
- 삼성·LG전자, M&A 본격 시동...빅딜 성사 가능성 [매일일보]
- 주총시즌 끝나면 RFP 쏟아진다...대기업 출발 신호 기다리는 M&A 시장 [인베스트 조선]
- 게임사에 부는 M&A 인재 영입 열풍 [서울경제]
- 유통 빅4 M&A 웃돈 부메랑 됐다 [한국경제]
- M&A 한파 끝났다...지난해보다 50% 증가 [SBS Biz]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여파...지난해 배터리 분야 M&A 활발 [경향신문]
- 최대실적 행진, 몸값 높아진 보험사...M&A 큰장 열린다 [머니투데이]
- 글로벌 고금리에 M&A시장 뚝...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인수·합병 73% 증가 [데일리안]
- 은행 의존도 커진 금융지주...보험사 M&A 시장 노크 [연합인포맥스]
- 국내외 곡물기업 인수합병 통한 외형 확장으로 시장점유율 높여 [한돈뉴스]
- 긴 겨울 지낸 바이오·헬스케어 M&A... 봄바람 불어나 [이데일리]

## IV. FAQ

### 1. 공시팀 담당자입니다. 제가 재직하는 회사가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궁금하며 보고서 작성시 유념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여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임
- ▶ 국내에서는 '17년 3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율공시 형태로 최초 도입된 이후 '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됨
- ▶ 2024년부터는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되어 FY2023 기준 자산규모(연결) 5천억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5월말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며 해당 기업들은 이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sup>1)</sup>

<표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 (연결재무제표 기준)

| 구분      | '17년 | '19년      | '22년      | '24년       | '26년 이후      |
|---------|------|-----------|-----------|------------|--------------|
| 의무공시 대상 | 자율공시 | 자산 2조원 이상 | 자산 1조원 이상 | 자산 5천억원 이상 | 유가증권시장 기업 전체 |

- ▶ 한국거래소는 '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하며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충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음
- ▶ 또한, 2023년 10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2024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추어 발표된 것으로, 2024년 제출 보고서부터 적용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충실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전적 이해가 필요함
- ▶ 개정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제도개선 사항과 G20/OECD 지배구조원칙, 2022년 개정시행된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 동향을 참고하고 실무적인 수요 등이 반영됨

1)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 IV. FAQ

### 1. 공시팀 담당자입니다. 제가 재직하는 회사가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궁금하며 보고서 작성시 유념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계속)

<표2> 개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sup>2)</sup>

| 구분                | 내용  | 원칙번호              |
|-------------------|---|-------------------|
| 배당예측 가능성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당 관련 표준정관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여부</li> <li>현금배당 관련 배당액 예측가능성 제공여부 추가</li> </ul>  | 1-4               |
|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소통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내역, 해외투자자 소통 위한 행사,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확대 등 신설</li> <li>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안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노력 및 그 내용을 공시</li> </ul> | 1-2<br>1-4<br>2-1 |
| 메자닌채권 등을 통한 자금조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는 자본조달 현황</li> <li>조달과정에서의 주주의견 수렴정책 공시 의무화</li> </ul>   | 2-3               |
| 이사회의 다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 뿐 아니라 연령, 경력 등으로 다양성 확대</li> <li>이사회 내 동일 성별 구성 여부 및 미준수 시 사유 기술</li> </ul>   | 4-2               |
| 보수정책 및 임원배상 책임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 개별평가에 연동한 보수정책 마련 여부</li> <li>보수 관련 정책의 공개 여부</li> <li>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남용방지 정책 공시</li> </ul>                                      | 7-1               |
|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익편취/부당지원, 회계처리기준 위반까지 확대</li> <li>1차적인 당국의 판단(기소 및 행정처분)을 기점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까지 공시</li> </ul>                              | 4-4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표'가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개정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지거나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고, 정책 개편 및 글로벌 추세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부 핵심 지표를 정비함

- 신설항목: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이 아님
- 삭제항목: 6년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1회 이상 교육 제공

➤ 개정 전 보고서 형식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항목을 단순 기술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가이드라인은 원칙 '준수여부' 및 정책 '시행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공시하도록 함

2) 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023.10.13

## IV. FAQ

### 2. 최근에 신규 선임된 상장사 감사위원입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와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수반되는 주요사안을 검토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감사위원회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해당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결의를 요하지 않음)

| 구분             | 해당조문             |
|----------------|------------------|
| 중요사항에 의한 의견진술권 | • 상법 제391조의2     |
| 정관위배나 부당사항     | • 상법 제413조       |
| 재무제표 등의 서류     | • 상법 제449조의2     |
| 감사에 대한 보고      | • 상법 제447조의4     |
|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  | • 외부감사법 제12조 제1항 |

- ▶ 상법 제41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시 주주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상에서도 감사위원회 위원장(필요시 감사위원 포함)이 감사위원회 활동을 보고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할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에 의해서도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위원회가 보고해야 하는 사안에 충실히 대응해야 함
- ▶ 또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 해임 외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  |
|---------------------------------|--|
| <b>감사위원회 모범규준</b><br>(VI.2.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주주총회 참석) 감사위원회 위원장(필요 시 감사위원 포함)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li> </ul> |
| <b>감사위원회 모범규준</b><br>(VI.2.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의 의견진술권)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li> </ul>  |

# V. 주요 행사

## Upcoming events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2024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 ▶ 대상: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C레벨 등
- ▶ 일시: 2024년 6월 3일 (월) 14:00 ~ 17:20  
- 세미나 종료 후 네트워킹 세션 제공
- ▶ 장소 / 비용: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The Forum at IFC (3F) / 무료
- ▶ 참석신청: 1) 우측 신청하기 링크 2) 우측 QR코드 3) 딜로이트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착순 접수 받으며 참석 확정시 별도 이메일 안내 예정
- ▶ 문의: krccg@deloitte.com

신청하기

QR 코드



**대주제** 국내 내부통제 현황 및 감독 방향

사회자: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시간                | 내용  | 담당  |
|-------------------|---|---|
| 14:00~14:05 (05분) | Opening Remarks   | 한국 딜로이트 그룹<br>홍중성 총괄대표  |
| 14:05~14:30 (25분) | <b>세션 1. 기조강연</b><br>사례로 짚어보는 고의 또는 중과실 이슈 및 시사점(내부통제 중심으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br>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 14:30~14:55 (25분) | <b>세션 2.</b><br>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br>장정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4:55~15:05 (10분) | Break Time  |   |
| 15:05~15:30 (25분) | <b>세션 3.</b><br>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 방향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감사 및 자문그룹<br>권대현 파트너   |
| 15:30~15:40 (10분) | <b>세션 4.</b><br>딜로이트 글로벌 보드룸 프로그램: 우먼 인 더 보드룸,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br>김한석 센터장  |
| 15:40~15:50 (10분) | Break Time  |   |
| 15:50~16:20 (30분) | <b>세션 5. 패널 토론</b><br>자금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현황 및 준비사항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br><b>좌장:</b> 유승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br>토론자: (1) 신한금융지주 김지은 감사파트장, (2)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창완 교수,<br>(3)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공로상) 수상자 계명대 손혁 교수,<br>(4)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이승영 수석위원 |
| 16:20~16:30 (10분) | Q&A   |   |
| 16:30~16:35 (05분) | Closing Remarks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감사 및 회계자문본부<br>장수재 본부장   |
| 16:35~17:20 (45분) | <b>네트워킹 세션</b>  |   |

※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미나는 '국내 내부통제 현황 및 감독 방향'을 대주제로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 발표 후 '자금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현황 및 준비사항' 주제로 패널토론이 예정됨
- ▶ 이후 세미나 참석자 간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네트워킹 세션은 당면 아젠다에 관한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구성되며 다과가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 V. 주요 행사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5호 발간

-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지난 2월 28일,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5호(계간지)를 발간함
- ▶ 전문가 기고 섹션은 최근 6년간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재무실적과 시가총액의 추세분석을 다룬 김한석 센터장의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등과의 연관성', 박재환 중앙대 교수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장정애 아주대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사의 책무' 를 수록함
  - 'CCG 아젠다' 섹션은 최근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가 연속 발생함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효과적인 내부통제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고려사항'을 주제로 내부통제가 조직내 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최고경영진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이 핵심이 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개선'을 강조함
  - '데이터 포인트' 섹션은 '2022-2023년 금융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을 다뤘으며 김한석 센터장은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한 개별 사외이사의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공시활동이 권고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사회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일반 조회인도 활동내용을 충분히 파악토록 하며, 회사는 결과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 활동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함



| 구분           |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5호 목차   |
|--------------|---|
| I. 전문가 기고    | ①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등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창간호에 이은 제2편)<br>-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br>②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br>-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br>③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사의 책무<br>-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정애 교수 |
| II. CCG 아젠다  | ①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전제조건과 감사위원회 감독 고려사항<br>②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이사회 인재관리에 관한 사고 전환   |
| III. 데이터 포인트 | ① 2022년-2023년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   |
| IV. 주요 규제 동향 | ① '23년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동향<br>② '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
| V. FAQ       | 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한 이사회 재결의   |

# 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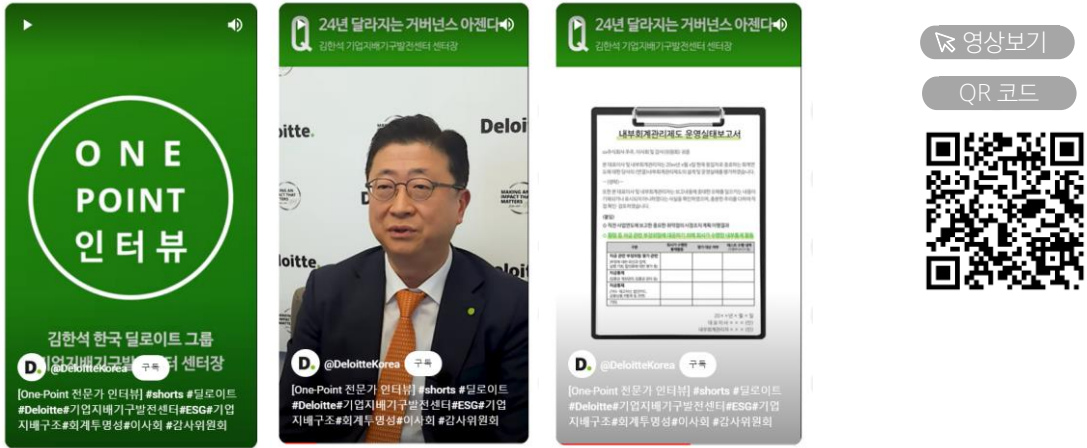
## [YouTub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를 소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014년 회계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설립되어 이사회·감사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지원, ESG 중 거버넌스 전략과 연계하는 등 회계법인 내에서 실무 팀 지원도 수행함</li> <li>센터의 주요 활동으로는 이사회·감사위원회를 위한 정기 발간물, 세미나/웹비나, 찾아가는 세미나, 대외자문 제공이 있음</li> <li>정기 발간물로는 기업지배기구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이사회·감사위원회 공시데이터 기반 현황분석 및 최신동향을 제공하는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월간 『뉴스레터』와 분기별 『Brief』, 글로벌 전문가의 통찰을 반영한 ‘이사회·감사위원회 실무 가이드’, 딜로이트 글로벌의 인사이트가 담긴 ‘국문 번역보고서’가 있으며 매월 ‘카드뉴스’ 제공</li> <li>기업지배구조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 대상 거버넌스 부분의 보고서 작성 지원 서비스 운영</li> <li>회사의 기 수립 평가기준, 방법, 절차를 준용하고 딜로이트 글로벌 자료를 참고하여 이사회, 위원회, 개별 사외이사 평가 서비스 운영</li> <li>센터의 다양한 발간물과 세미나 자료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발간물 구독 신청을 통해 주요발간 소식 수신 가능</li> </ul> |

# 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YouTube] One Point 전문가 인터뷰 - '24년 달라지는 거버넌스 아젠다



▶ 영상보기  
QR 코드



| 구분 | 내용  |
|----|---|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One Point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2024년 달라지는 거버넌스 아젠다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강화'를 소개함</li> <li>• 기업 책임의식 제고와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 기준이 마련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가 강화될 예정임</li> <li>• 현행은 사업보고서 제출시 운영실태보고서와 운영평가보고서를 함께 공시하나, 공시내용이 형식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li> <li>•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실태보고서는 경영진이 자금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행한 내부통제활동을 기재하는 서식이 마련되었으며, 평가보고서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협의 외에, 자금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을 기재하는 서식이 마련됨</li> <li>•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li> <li>• 2024 사업연도에 한해 현행 준거기준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규준에 따른 평가·보고 수행 가능</li> </ul> |

# V. 주요 행사

##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

| 구분   | 내용  |
|------|---|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월 5일, 딜로이트 안진이 후원하고, 한국회계학회가 주관하는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이하 안진 학술상)' 시상식이 한국 딜로이트 그룹 본사에서 개최됨</li> <li>• Honors Award(공로상)에 손혁 계명대 교수, Emerging Scholar Award(신진학자상)에 박주형 한림대 교수가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등의 연구활동으로 회계학 발전에 기여함이 인정되어 초대 수상자로 선정됨</li> <li>• 본 '학술상'은 한국회계학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교수들의 활동 기간은 1년임</li> <li>• 홍중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는 학자들의 연구활동은 회계학 분야의 발전과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이 학자들의 인사이트를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li> </ul> |
| 수상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진 학술상 Honors Award (공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투명성 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관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향후에도 해당 분야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진 학자</li> </ul> </li> <li>• 안진 학술상 Emerging Scholar Award (신진학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 수여일이 선발공고일까지 5년 이내인 학자 중 '회계투명성 확보' 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관 분야에서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도 해당 분야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진학자</li> </ul> </li> </ul>  |
| 수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nors Award(공로상) 분야: 손혁 계명대 회계학전공 교수</li> <li>• Emerging Scholar Award(신진학자상): 박주형 한림대 경영대학 교수</li> </ul>   |

기사보기

QR 코드



# V. 주요 행사

## [웨비나] 이사회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

| 구분 | 내용  |
|----|---|
| 일시 | 2024년 6월 6일 (목) 오전 12:00  |
| 장소 |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br>*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
| 패널 | • 이사회 의장 및 임원   |
| 개요 | • 이사회는 기업이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가장 효과적인 이사회는 직원, 고객, 더 넓은 지역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것임<br>• 이사회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br>• 선도적인 이사회가 사회전반에서 이사회 역할에 어떻게 재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임 |

신청하기

QR 코드





# V. 주요 행사

## [온라인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 동영상

| 구분 | 내용  |
|----|---|
| 일시 | 상시  |
| 장소 | 온라인 시청  |
| 개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ICFR Regulation (상/하)</li> <li>2. ICFR 감사방법론</li> <li>3. 위험평가</li> <li>4. 범위선정</li> <li>5. 통제활동 (상/하)</li> <li>6. 변화관리와 설계평가</li> <li>7. 운영평가 (상/중/하)</li> <li>8. 모니터링 및 보고</li> <li>9.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 (상/하)</li> <li>10. 정보기술일반통제 (상/하)</li> <li>11. 자동통제 (상/하)</li> <li>12. Post ICFR 운영방안</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의 동영상 교육을 공개함</li> <li>• 2023년부터 시행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준비함</li> <li>•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수강 및 수료증발급은 상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영상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함</li> </ul> |

신청하기

QR 코드



# V. 주요 행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온라인 교육]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 구분 | 내용  |
|----|---|
| 일시 | 상시  |
| 장소 | 온라인 시청  |
| 개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li> <li>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li> <li>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li> <li>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li> <li>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li> <li>6. 요약</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li> <li>•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li> </ul> |

동영상 보기

QR 코드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 파트너



####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 정 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 자문교수단



####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 채널]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